

# “자연과 벗했던 감성이 내 글쓰기 자양분”

## 2018 주목! 이 사람

〈2〉동화작가 안수자

- 함평 산골 3남 5녀중 다섯째 딸
- 광주일보 신춘문에 당선 데뷔
- 2013년 안데르센 문학상 수상
- 33살 방통대 졸업 무렵 문학 접해
- “동화는 자연의 생명까지 존중해야”
- 페루 배경 장편 판타지 집필중



안수자 동화 작가는 새해에는 페루를 배경으로 하는 장편 판타지 동화와 그림책을 선 보일 예정이다.

안수자 동화작가(49)는 어린 시절 산 속 외딴집 기억이 동화를 쓰는 계기가 됐다.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이웃이라고는 100미터쯤 떨어진 작은 암자가 전부인 오지에서 살았다. 유년의 시절 자연과 벗했던 감성이 지금의 동화를 쓰게 하는 동인으로 작용했을 터였다.

“유난히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라 겨울이면 길 양쪽으로 키보다 높은 눈 벽을 만들곤 했어요. 제가 사람을 좋아하는 건 그 눈 벽 때문인 것 같아요. 외딴 곳에 살면 누구라도 사람을 그리워하게 되더라고요.”

안수자 작가는 집에서 3km 정도 떨어진 학교에 다녔다. 아침마다 터덜터덜 걸어 등교하는 길은 무척 행복했다고 한다. 안 작가는 “나무가 경중경중 나와 함께 걷는다 생각하며 이야기를 나눴고, 동물들과 꽃잎들이 들려주는 재미난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새해 들어 수은주가 떨어져 제법 추운 날씨였다. 광천동에 자리한 이상자동화연구소에서 안 작가를 만났다. 그녀는 매일 출근하다시피 이곳으로 나와 동료, 선배들과 동화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공부하겠다고 했다.

안 작가의 첫 인상은 수더분하고 편안해보였다. 예의 동화를 쓰는 사람 특유의 느낌이라니 싶었다. 그러나 막상 대화를 나눠보니 동화적 감성과 열정은 사투 날카로웠다. 자신만의 세계를 묵묵히 개척해온 이의 단단한 내공이 자연스레 배어나왔다.

함평 출신의 안 작가는 2011년 광주일보 신춘문에 ‘숫속에 사는 무당거미’가 당선돼 문단에 나왔다. 이후 단편동화 ‘뿌사리’로 안데르센문학상(2013년)을 수상했으며 장편동화집 ‘우주나무 정거장’으로 MBC장작동화대상(2015년)을 수상했다. 지금까지 장편 동화 ‘파랑게르치 날다’와 단편동화집 ‘느티나무 괴물들’, 청소년소설 ‘모해를 찾아라’를 펴냈다. 이렇듯 안 작가는 신춘문에 등단 이후 짧은 기간



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그녀는 “어린이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주는 것이 동화의 기본이라고 생각한다”며 “나아가 제가 쓴 이야기에 상처 받은 어린이가 생기지 않아야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안 작가는 3남5녀 중 다섯째 딸로 태어났다. 지식욕심이 많은 부모님 덕분에 집안은 늘 북적거렸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못해 일찍부터 ‘결핍’을 경험했고 ‘내성’을 길러야 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때부터는 완전히 독립해야 했습니다. 경제적인 면이나 정신적인 면이나 모두요, 직장에 다니면서 고등학교를 다녔고, 학비와 생활비를 스스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었죠.”

그녀는 33살이라는 늦은 나이에 방송통신대 컴퓨터과학과를 졸업한다. 그 즈음 문학을 접하게 됐는데, 내면에 잠재돼 있던 문학에 대한 열망이 살아나는 것을 느낀다. 곧바로 방송통신대 국문과에 입학에 만학도가 된다. 그러나 도전은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 국문과를 졸업하고는 광주교대 아동문학교육과에 진학해 작년에서야 석사과정을 마친다.

돌아보면 그렇게 평탄한 삶은 아니었다. 산촌 오지에서의 출생도 그렇고 공부하는 과정 또한 그러했다. 그러나 어린 시절 산골에서 체득된 동화적 감

성은 그녀의 내면에 글쓰기라는 불을 지켰다. 마침내 2011년 신춘문을 통해 동화작가라는 타이틀을 차지하게 된다.

그러나 그녀는 신춘문에 이후 한동안 슬럼프를 겪었다. 작품이 잘 써지지 않았다.

“내가 동화작가로서의 소질이 있는가, 확신이 서지 않아서 불안했어요. 그 무렵 ‘글을 머리카락 소질로 쓰는 사람은 1%도 안 된다. 대부분은 엉덩이로 쓴다.’라는 말이 떠올랐어요.”

현재 안 작가는 페루를 배경으로 한 장편 판타지 동화를 쓰고 있는 중이다. 또한 3월쯤에는 그림책도 발간 될 예정이다.

그림책은 ‘단자단지’에 관한 동화다. 예전 시골에서 제삿날 저녁에 펼쳐졌던 전통놀이이라고 한다. 전라도 지역에서 성행했던 놀이지만 지금은 없어져버려, 전통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장작을 곁설했다는 것이다.

“오래 전 시골에서는 제사를 지내고 나면 음식을 나눠먹는 풍습이 있었어요. 동네 아이들이 먹고 싶은 음식을 적어 비행기를 만들어 단자단지에 넣어 두거든요. 그리고 제사가 끝날 무렵에 단자단지와 함께 날려 보냅니다. 그러면 제사를 지내는 집에서 종이를 보고 음식을 단자에 넣어두는 거죠.”

페루를 배경으로 하는 동화는 전형적인 판타지물이다. 공부를 하면서 판타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 이를 형상화하고 싶었다는 것이다. 안 작가는 “오래 전에 사라져버린 마추피추를 배경으로 한 작품이다”며 “당시의 사람을 찾기 위해 판타지 세계로 들어가 그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상상으로 그려낸 동화”라고 덧붙였다.

앞으로의 동화는 다양한 방향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 안 작가는 그림에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자연, 모든 생명들에 대한 소중함과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복선기자 skypark@kwangju.co.kr

## 조선주 작가 ‘생활 속 친환경 업사이클 소품전’

광주여성재단 16일~3월 16일

편지지 만들기 참가자 모집도



(재)광주여성재단은 오는 16일부터 3월16일까지 재단 내 북카페에서 조선주작가의 ‘생활 속 친환경 업사이클 소품전’을 개최한다.

이 전시는 지역여성 작가의 솜씨를 보고 배울 수 있도록 광주여성재단이 인증상설로 기획한 2018년 제1차 작은전시 및 체험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조선주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생활 속 친환경 업사이클링 북아트와 생활소품들’을 전시한다.

누구나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작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이 작가는 16일 오후 2시 재단 내 북카페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료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날 프로그램에서는 잊혀져 가는 손 편지로 정성기득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카드를 업사이클링 북아트 공예로 만들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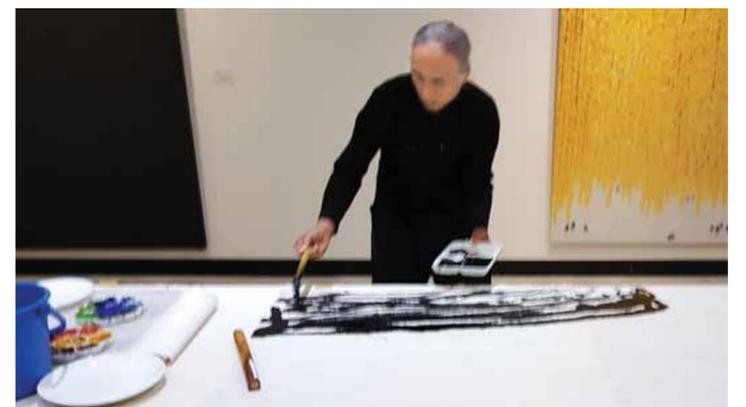
아날로그적인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간단

하고 다양한 누름꽃 북아트 카드를 여러 디자인 중에서 마음에 드는 디자인을 선택해서 만들어 볼 수 있도록 ‘누름꽃 편지와 북본 봉투’ 체험프로그램을 준비했다. 관심있는 지역민이면 누구나 무료참여 가능하고, 참여 희망자는 15일까지 홈페이지(www.gjwf.or.kr) 및 팩스(670-0505)로 선착순 신청하면 된다.

조선주작가는 2014 광주평생학습 시민아이디어 공모 대상수상 등 다수의 수상과 전시경력이 있으며 현재 동구에서 개인공방을 운영하고 있다. 문의 062-670-0536.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 금봉미술관 신년 기획전 ‘여흥에 먹풀어~’



지난해 금봉미술관에서 열렸던 신년 회화 행사 모습.

10일 현장 회화 쓰기, 17~25일 전시...음식 나누며 작가와 담소도

‘서화(書畵)와 함께 새해를...’

광주시 북구 시화마을에 자리한 금봉미술관(한상운 관장)이 미술신년 행사로 풍류가 어우러진 전시회를 준비했다.

‘여흥에 먹풀어~’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지역 서화가들이 현장에서 회화를 쓰고, 이를 전시하는 기획이다.

회화 행사는 10일 오후 1시30분~5시까지 금봉미술관에서 열리며 전시는 오는 17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다. 회화 행사 시간에는 참여작가의 작품 시연과 함께 다양한 먹을거리도 나누며 담소를 나누는 시간도 마련된다. 시민 누구나 편하게 참여할 수 있다.

참여작가는 문인화의 금봉 박행보, 계산 장찬

홍, 평사 허희남, 시원 박태후, 우담 이부재 등이다. 또 한국화의 장강 김인화, 정국 윤의중, 석운 김재일, 정산 백현호, 송산 박문수, 목정 이선복 선생과 서예의 일숙 오명섭, 담헌 전명옥, 최정 임춘식, 토정 이흥홍, 하림 김국상, 석헌 이준형 작가가 참여한다.

미술관 관계자는 “시민들이 현장에서 작가들이 직접 회화를 쓰고 작품을 제작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완성된 작품을 감상하며 제작 과정의 생생한 느낌을 떠올리는 특별한 전시”라고 말했다.

지난 2015년 5월 개관한 금봉미술관은 박행보 화백이 북구정에 작품 291점을 기증하며 설립된 구립미술관이다. 개관 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문의 062-269-9883. /김미기자 mekim@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국제보청기**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에도 변함없이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정겨운 만남은 품격있는 **금수장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광주맛집 since 1981 36년을 고객과 함께 지킴 1등 맛집 연속 선정 광주의 대표 맛집

**광주금수장호텔** GEUMSUJANG HOTEL